고흥군, 고향사랑기부제 우주항공축제 현장 홍보 추진

“불꽃에서 우주까지…가정의 달 나눔 이벤트”

고흥우주항공축제 현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진행하고있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최근 고흥우주항공축제 행사장 내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현장 홍보를 적극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불꽃으로 시작해, 우주로 이어지는 나눔’을 주제로 4월 녹동항 드론쇼·불꽃축제에 이어 5월 우주항공축제까지 연계해 추진했다. 군은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과 가족 단위 방문객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 가정의 달 이벤트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특히 행사 기간 중 우천 시에는 비옷을 제공하며 현장 홍보를 진행해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어린이날에는 ‘흥이’ 인형 키링을 활용한 홍보물을 배부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의 관심을 끌었다. 또한 고흥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한 인스타그램 팔로우 참여를 안내하고 ‘고향사랑기부 무작정 따라하기’ 홍보 배너를 활용해 누구나 쉽게 기부 절차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유빈 기자

“보성군 어린이날 행사 성대 개최”

보성군은 제104회 어린이날을 맞아 최근 한국차문화공원 일원에서 열린 ‘제104회 어린이날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보성문화재단이 주최·주관했으며, ‘제49회 보성다향대축제’와 연계 추진돼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광객 등 4천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가족형 축제로 펼쳐졌다.

행사장에는 ▲목공 블록 만들기, ▲키캡 키링 만들기, ▲인생네컷 촬영, ▲카네이션 바구니 만들기 등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감성을 키울 수 있는 체험 부스가 운영됐으며, 부모와 아이가 함께 참여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어린이 참여형 프로그램인 ‘도전 골든벨’은 행사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달궜다. 퀴즈를 통해 어린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1등에게는 전기자전거, 2등에게는 태블릿PC, 3등에게는 무선 헤드셋이 각각 수여됐다./김윤성 기자

해남군, 봄철 불청객 진드기 감염병 주의하세요

해남군은 지난 21일 울산광역시에서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군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SFTS는 주로 4~11월에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며, 감염 시 2주 이내 고열,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 혈소판·백혈구 감소 및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또한, 18.5%의 높은 치명률에도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주의해야 하는 감염병으로,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가 최선의 예방법이다.

SFTS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외활동 전 긴 옷 착용 등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야외에서는 돗자리 등을 깔고 앉으며 야외활동 후 옷을 털고 세탁하는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박종옥 기자

2026년 농협 진도군지부 벼 육묘장 일손돕기 실시

농협 진도군지부(지부장 황지연)와 서진도농협(조합장 강성민)은 지난 4월 30일 벼 육묘 모판 작업 현장을 찾아 농가를 위한 모판 제작 및 파종 작업을 도우며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나눴다.

이번 일손돕기는 ‘농민의 마음이 곧 하늘의 마음’이라는 농협의 변함없는 경영 철학인 농심천심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특히 한 해 농사의 근간이 되는 육묘 단계에서 인력난으로 애를 태우는 농가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고품질 진도 쌀 생산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이다.

강성민 서진도농협 조합장은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농협의 존재 이유이자 농심천심의 실천”이라며, “이번 모판 작업이 농가의 풍년 농사로 이어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가영 기자

장흥군, 수산물 브랜드 ‘장흥 팔딱낙지’ 선포식 개최

장흥군은 최근 수산물 위판장 준공식 현장에서 수산물 공동브랜드 ‘장흥 팔딱낙지’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수협 관계자와 어업인 조합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선포식은 장흥을 대표하는 특산물인 낙지의 브랜드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청정 갯벌에서 자란 장흥 낙지의 차별화된 가치를 대내외에 확산하기 위한 전략적 출발점으로 마련됐다.

장흥군은 ‘장흥 팔딱낙지’를 중심으로 통합 브랜드 체계를 갖추고, 공격적인 홍보·마케팅과 온·오프라인 유통망 확장을 병행해 전국 단위 인지도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나아가 프리미엄 수산물 시장 공략을 통해 어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 어촌경제 활성화를 견인한다는 구상이다.

/김정근 기자

완도「냉동창고 화재」관련 공사업체 대표 등 2명 구속

전남경찰 sns 안내 포스터 /완도군 홍보팀 제공

지난 4월 12일 완도군 군외면 소재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사건과 관련하여 작업자인 불법체류 중국인 B씨(30대·남)와 작업관리자인 공사업체 대표 A씨(60대·남)를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화재 발생 즉시 완도경찰서에 47명(경찰서 27명, 도경 20명) 규모의 수사본부(본부장 완도경찰서장)를 구성하여 업무상 실화, 화재 진화 과정, 건물 인허가 등 전반적 사항에 대하여 수사하였으며, 경찰, 국과수 합동 감식 및 CCTV 분석과 관련자 조사 결과, A씨가 화재 안전설비 배치 및 안전교육 없이 B씨에게 바닥재 제거작업을 지시하고, B씨는 LPG 가스 토치로 가열하며 바닥재를 제거하던 중 불꽃이 벽면 내장재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 B씨에 대하여 작업 중 화재를 발생케 한 혐의로 업무상실화, 출입국관리법위반(불법체류) 등으로 구속하여 4월 21일에 송치했고, 작업을 지시하고 관리한 A씨 또한 업무상실화, 범인도피, 출입국관리법위반(불법체류자 고용) 등으로 4월 27일 구속, 금일 송치하였다.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 진술과 CCTV 분석, 무전 녹취록 등을 종합하여 화재 발생부터 소방관 탈출(고립) 시까지 전 과정에 대하여 재구성하였으며,

밀폐된 창고 내부 천장과 벽면에 쌓여 있던 에폭시 및 우레탄 유증기가 점화되면서 순식간에 화염이 확산하는 ‘플래시오버’ 현상이 발생해 대원 2명이 고립된 것으로 보이며, 관련 조사사항은 소방합동조사단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화기 작업 시 안전조치와 교육을 철저히 해 화재 예방을 당부했다.

/이가영 기자